

인사부

“우선은 회사가 발전해야 되겠지요”

대진전자공업(주) 기술생산과장 이 영 세



출 생 지 : 경남 창녕
 생년월일 : '60. 8. 10
 가족관계 : 부인, 1녀
 생활신조 : 성실 · 책임완수
 취 미 : 볼링, 테니스
 신 장 : 165Cm
 입사년월일 : '89. 7. 3

전자식안점기와 전류감지기라는 제품에 마음이 끌려 이 분야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입사를 결심했다는 이영세 과장. 본지는 대진전자공업(주) 기술생산과장으로 불철주야 신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영세 과장을 만나 보았다.

경남 창녕산으로 165Cm의 키에 볼링, 테니스를 즐겨한다는 이 과장·입사 3년이 안된

현재 이 과장의 기술개발 실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숨은 인재임을 알 수가 있다. 그가 입사 개발한 제품 및 기술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웨라이트 코아를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환형 전자식안정기 개발, EMI 극소화, 및 110W×1, 110W×2 전자식안정기 및 전류감지기 소형화 등으로 엄청난 기술력을 지닌 인재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제품

의 수요처에 대한 질문에 이영세 과장은 “가장 많은 사용처는 형광등을 켜는 등기구내에 사용하지요. 사무실, 가정, 상가 등입니다. 형광등용 전자식안정기는 우리나라 조명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주면서 우리들의 생활에 속속들이 파고 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력의 절전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 한몫을 하며 범국가적

인 정책에 당사는 기술개발과 품질개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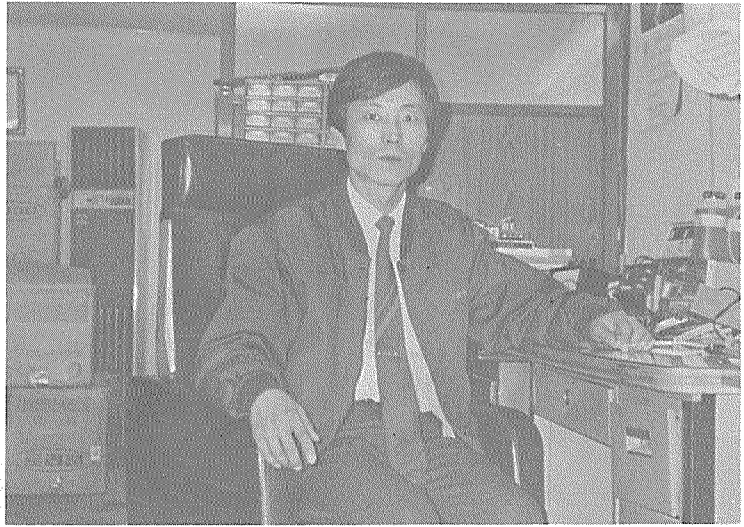
아울러 AC, DC 홀소자를 사용한 전류 센서는 공장자동화 분야로 부터 인버터 UPS 등의 전력전자 부분에 전류를 정밀하게 감지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도 엄청난 수입체재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신조로 성실과 책임만을 마음속 깊이 항상 간직하고 생활한다는 이 과장, 현재 기술생산과장인 그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같이 잘되는 것같지 않다고 한다.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하고 중간지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사와 직원들과의 중간에서 양쪽을 만족하게 하기란 불가능 하지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사장님의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상사에게서 들었던 인생관이나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부하직원들에게 들려주며 가족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자기 개인 자신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듯이 사내역시 불평과 불만이 따릅니다. 항상 인간적으로 대화와 협력, 인화단결을 토대로 나의 회사 성장이 나의 발전(인내)을 말하며 직원들을 독려 어려운 점



을 건의 해소를 하지요.”

이 과장은 3남 2녀 중 차남으로 현재는 5살(유경)이와 부인과 세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회사에서 이것 저것 신경전을 벌이고 늦게 집에 가면 늦은시간 까지도 기다렸다가 반겨주는 녀석(유경)과 아내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픈 생각입니다만 마음뿐이지요”

전자식 안정기는 국제화 추세가 110V/220V 겸용, 원격제어용, 조도의 외부강약에 따라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형태, 소형화, 다양화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여러분야로 검토 연구해야 하며, 전류 감지기도 소형화 및 고주파용으로 범용화시켜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국제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과장, 또한 이과장은 기술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풍부한 시험장비의 부족으로 기술분석의 어려움과 국내 부품업계의 낙후로 인하여 완벽한 특성을 갖춘 저가격의 제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과장은 회사내에서도 숨은 인재로, 만능 스포츠맨으로 인기맨이라는 부서직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우선은 회사가 발전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입사 2년 9개월만에 얻은 많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제품개발에 힘쓰는 이과장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같이하기를 기대해 본다.